

'방역패스 중단 후' 코로나 백신 접종률 ↓

정부 "미접종자, 접종 완료자 6배 치명률" 교육부 대체인력풀 7.5만명 마련...실효성無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중단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둔화되고 있는 데 대해 "미접종자의 경우 오미크론이라 해도 계절독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치명률을 감수해야 한다"며 접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백신을 더 이상 맞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접종률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입한 방역패스를 지난 1일 0시 중단했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로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고, 각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나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목적이었고 강조해왔지만, 접종률이 더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점도 중단 이유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접종률은 주춤한 상태다. 1차 접종률과 2차 접종률이 이날 0시 기준 전 국민 대비 각각 87.4%, 86.5%인 데 반해 3차 접종률은 62.0%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접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치명률이 낮아졌지만 계절독감과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영역은 3차 접종 완료자에 평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미접종자는 6배에 육박하는 치명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 시에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0.08%로서 독감과 비슷해지나, 미접종 시에는 0.6%로 독감의 6배 이상으로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더 이상 미접종자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일종의 희생물 해서 보호하는 체계로 가지 않고, 이제는 미접종자가 자율적으로 접종받아야 한다"며 "그게 싫다면 최대한 감염이 안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의견 수렴 촉구 기자회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선 및 의견 수렴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기관이 분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 원인은?

수사본부, 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 브리핑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조사한 전문 기관이 최초 붕괴 원인으로 임의 구조 변경, 초과 하중을 지목했다.

하부층 지지대(동바리)가 제거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한 데다, 구조적 취약성과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이 맞물려 16개 층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통보한 재해조사의견서 내용을 중심으로 최초·연쇄 붕괴 원인을 설명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최초 붕괴 원인으로 ▲PIT(설비)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등을 꼽았다.

기존 설계와 다르게 PIT층의 높이 차 구조에 따라 데크 플레이트와 수심 t에 이르는 받침대(T자형 역보) 등을 활용하는 공법이 적용됐다. 받침대 무게가 발생하는 만큼 구조 진단을 다시 해야하는 변화였지만 임의로 변경했다.

여기에 최상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를 거꾸집에 들어보는 작업 하중까지 더해졌다. 그러나 아래 3개 층(PIT·38·37층)에 수직 하중을 지탱할 동바리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결국 설계보다 큰 수직 하중에 짓 눌린 바닥 슬래브가 휘거나 '전단 파괴'(끊어지듯 파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16개 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 는 연속 충격 하중, 무량판 공법의 구조적 취약성,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이 지적됐다.

우선 최상층부터 무너져 내리는 수직 하중에 추락 높이·속도에 따른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누적 파괴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됐다. 수사본부가 자문한 한국건설품질연구원 전문가도 '무게 1t 구조물이 3m 아래로 떨어질 때는 3.8t의 하중이 된다'고 추산했다.

또 지지보나 내력벽 없이 기둥으로만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판 공법'도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실제 상층부 바닥 슬래브의 처짐 정도가 지나치게 커 붕괴 충격을 충분히 나눠 부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겨울철 눈 오는 날씨에 콘크리트 양생을 강행하고 보양 천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시공 품질 관리 부실도 연쇄 붕괴의 한 요인으로 제기됐다.

구체적인 겨울철 양생 부실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또 콘크리트 시공 품질도 부분적으로 불량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측정에선 일부 층은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KDS14 20 01)상 24MPa의 75~85%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붕괴 현장 내 콘크리트 잔해가 철근과의 부착 강도가 떨어져 있는 점도 시공 품질 문제를 방증하는 현상으로 꼽힌다.

CPB(Concrete Placing Boom)를 통한 상층부 콘크리트 공급에 필요한 유화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물을 탕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본부도 콘크리트 농도를 조절할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 밖에도 전반적인 공사 관리·감독 부실 등도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수사본부가 공사 관계자 진술·확보 자료 등을 토대로 파악한 붕괴 주요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PIT층 내 무대 시공, 동바리(지지대) 조끼 철거 등 수사본부가 지목한 붕괴 원인이 과학적 검증으로 뒷받침된 셈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하부층 동바리 제대로 설치돼 있었다면 연쇄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충분한 구조 검토가 이뤄졌다면 보다 안전한 시공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중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슬비기자



'강원산불' 큰위기 넘겨

위태로웠던 강원도 산불 상황이 다행히 위기를 넘겼다.

7일 강원도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 따르면 낮 12시 현재 진화율은 동해·강릉 90%, 삼척 80%로 관측됐다.

영월 산불은 50% 진화율에서 진척이 없다.

진화율은 산림당국이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산불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영동 지역은 일몰 전까지 남은 시간이 7시간 정도인 만큼 주불 진화율 100%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조특보가 해제되고 있긴 하지만 강풍특보가 해제된 후 바람이 불지 않거나 매우 약한 정도여서 주불 진화에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산림당국은 주불이 진화되는 대로 뒷불 감시조를 편성해 재발화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주불 진화 뒤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잔불은 육군 장병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산에 올라 갈퀴로 땅을 뒤집은 뒤 등짐펌프 호스로 물을 뿌려 화기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삼척 주요 화선에 인력 835명, 장비 83대, 헬기 52대를 투입했다.

동해·강릉 화선은 인력 3717명, 장비 255대, 헬기 25대를 투입했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동해·강릉 산림 4000ha, 강릉 육계 사망 1명, 주택 6채와 공사·창고·농막·축사 각 1동 전소, 동해 주택 58채 전소, 29채 일부 소실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는 야간에 드론을 띄워 정밀조사를 한 결과라고 산림당국은 설명했다.산불로 대피했던 동해·강릉 주민 264명 중 244명이 귀가했다. 집을 잃은 주민 40명은 동해 망상 철도수련원에서 지내고 있다.

삼척 산림 피해 규모는 650ha, 주택 1채·군 소초 1동·7㎡ 규모의 탄약고가 전소됐고 고평 마을회관 1동이 일부 소실됐다.

산양1리 6만 마을 상수도관(1.75km)은 열기에 녹아내리는 등 피해가 났다. 주민 52명은 읍사무소와 유기농센터, 해돋이펜션, 친인척 집에서 지내고 있고 요양시설 91명은 경로당 등에서 머물고 있다. 산림당국은 현재 80ha가 검게 탄 것으로 추정되는 영월 산불도 일몰 전까지 주불을 끝 방침이다.

서선욱기자



담양경찰,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담양남초등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며 4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동부소방, 총금지하사가 등 재난 시 피난대책 특수시책 추진

광주동부소방서는 관내 총금지하사가 및 금단지하사가 재난상황에 대비, 지하도상가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피난대책 등 특수시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병무청, 사회복지요원 전공 살려 공공미술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광주시 도심 속에 위치한 '광주 동구 미로센터'는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지역예술인과 시민참여자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작품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광주보훈청, 광주교육대학교에 국가보훈처장 감사패 전달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종배, 이하 광주보훈청)은 지난 2일 광주교육대학교(총장 최도성, 이하 광주교대)에 국가보훈처장 감사패를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국립공원공단, 시민참여 국립공원 습지보전의 날 행사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동순)는 제2회 국립공원의 날 주간 기간 맞아 '2022년 시민참여 국립공원 습지보전의 날'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완도해경, 폐수 의심 물질 배출증인 화물선 단속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완도군 청산도 남쪽 약 10킬로미터 해상에서 폐수 의심 물질을 배출한 외국적 화물선박 A호(94,013톤) 단속을 나섰다고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